교회의 바벨성읍 쌓기

(막12:10-12)

10.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11.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12.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교회의 바벨성읍 쌓기'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교회의 바벨성읍 쌓기'
바벨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참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꼭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인류의 타락성이 교만에 의한 것일 때, 인간의 자만심에 의한 것일 때, 바벨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게 타이타닉 호 같은 것이겠지요?
'하나님도 침몰 시킬 수 없는 배!'
이게 타이타닉호의 광고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빙산에 부딪치면서 첫 출항 때 그만 지상에서 없어져 버리고 말지요.
이런 걸 바벨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바벨탑이 언급되었던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바벨성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바벨성읍에 대해서.

이게 무슨 얘깁니까?
바벨성읍이 뭐겠습니까?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하나님의 힘과 견줄 수 있다고 믿는 마음, 다시 말해서 내가 존재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불필요하다고 여길 수 있을 만큼 자기 자신의 능력이 과대평가되고 있는 상태가 바벨탑으로 묘사된다고 그러면, 이 바벨성읍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벨성읍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탑이 있다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머물러요.

그러면 도대체 교회가 바벨성읍을 쌓는다고 하는 얘기는 결론부터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는 Local Church 자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일부이지요.
그런데 이 Local Church 들이 자체 안에 조직을 가질 때 그 Local Church 가 갖는 교회내의 조직이 바로 바벨성읍으로 비견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얘기지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시편 118편의 내용을 따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유대사회 내의 건축자들로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버린 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예수님이라는 돌에 의해서, 그 돌이 머릿돌로 Keystone, 주춧돌로 놓여진 새로운 건물이 등장을 하게 될 거라는 얘깁니다.
참 은혜의 건물, 참 복음의 건물, 참 신앙의 건물이 이제 버려진, 그들이 하나님을 전매특허 낸 건축자들로서 버린 그 돌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 건축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하나님을 전매특허 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을 전매특허 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전매특허 내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가르침을 독점하고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건물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오늘 날 처한 형편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를 보려면, 그 당시의 선민사회, 그게 바로 교회였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유대나라 자체가 교회였습니다, 그 유대나라라는 교회를 건축했던 건축자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들의 건축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얘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돌을 끼워 넣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맞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만들어낸 건축물이 뭡니까?
바로 유대사회의 조직입니다.
그 조직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대제사장을 정점으로 해서 피라미드식으로 이루어진 조직이었습니다.
유대나라, 선민의 나라라는 이 교회가 바로 피라미드식으로 조직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 그룹들이 그 밑에 있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 아래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엣세네파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엣세네파 사람들과 제사장 사이에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대인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여자와 아이들이, 그리고 고아와 과부가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죠.
그리고 그 아래 죄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 유대사회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사회의 건축자들, 지도자들의 그 사회조직에 대한 구도가 바로 그렇게 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라미드식으로 되어져 있는 이 구도 안에서, 예수님이 왜 맞지 않는 겁니까?
왜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 사회 안에 끼어들려면 그 조직을 이루는 벽돌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창세기 우리 11장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요,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돌을 대신해서, 벽돌로', 의미가 있는 거지요.
벽돌이라는 것은, 인간이 계획한 건축물을 위해서 맞는 규격의 돌들을 만들어 낸 게 벽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대사회에서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려지는 이유는, 유대사회의 조직 속으로 끼어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 이 끼어들어갈 수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이방인들, 죄인들, 여자와 고아 아이들이 있고, 유대인 남자가 있고 뭐 그 위에 바리새인들 엣세네파, 사두개인들이 있고, 그 위에 장로가 있고, 서기관과 율법사가 있고, 그 위에 산헤드린 공회가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밑바닥에서 하나님까지 가려면, 엄~청난 층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맞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도 아니고 율법사도 서기관도 아닌데, 목수인데, 평민 유대인 남자인데, 대제사장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을 직접 연결해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이 유대인 평민남자, 목수출신 이 남자가, 이 유대사회의 피라미드식으로 이루어진 조직 안에 끼어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친구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죄인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대제사장보다 먼저 하나님께 도달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 자신이 피라미드구조의 조직을 다 제쳐버리고 하나님과 직접 만났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창기라도 그것이 세리라도, 매국노라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고 말하고 다니셨으니까, 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제사장들, 산헤드린 공회, 서기관과 율법사들, 장로들. 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다 붕 떠버린 거예요.

‘우린 뭐야? 그럼’ ‘밑바닥인 이방인들도 죄인도,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로마 백부장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직접 연결될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대제사장부터 그 아래 있는 모든 계층의 피라미드의 이 조직 구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자기들을 떠받치고 있는 모든 하부구조의 조직을 다 포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포기해야 돼요.
그 조직 안에서는, 사람들이 남자들 유대인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아이들 모든 고아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조직 내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점에 있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들을 위한 것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직의 규율대로, 조직의 법칙대로 움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생각을 하지마는, 실제로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가 원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다 그 밑에 하부구조에서 일하는 효과가, 자기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게 돼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모든 조직을 다 없애고 하나님과 직접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은혜의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은혜의 길을.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모든 교인이 다 건축자가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왜냐 하면 주님이 지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주축으로 건축자들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가 다 건축가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우리 각자가 건축가.
우리는 지역교회 내에서 조직을 만들어 놓고 교인 하나하나를 그 조직에 맞는 벽돌로 만들어 가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일반교인으로부터 세례교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권찰 만들고 구역장 만들고 집사주고 안수집사주고 권사주고 교구장 뭐 맡게 하고… 이래서 벽돌로 만들어선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지역교회는 조직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조직에 해당되는 건축은, 교인 각자가 자기 삶에서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건축가입니다, 나 한 사람이 건축가에요.
뭘 건축합니까?
내 인생을 건축하는 겁니다.
부부관계를 건축하는 것이고, 자녀관계를 건축해 나가는 것이고, 일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는 또 그걸 건축해 나가는 거고,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다 건축해 나가는 겁니다.
그 시간 시간이 다 돌이고 벽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건축을 하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을 머릿돌로 해서 건축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직접 닿는 대제사장입니다.
은혜로서 닿는 거예요 은혜로서.

바벨탑에서 하나님께 도달하겠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 말고라도 하나님과 같은 힘과 능력이 있다, 하나님 수준에 미칠 수 있다'라고 말한 그런 교만이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닿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불러주셔서 은혜로 닿는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닿을 수 있는 자들이 뭐 하는 자들이냐?
이 세상에서 건축하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 옛날 주님 시절에 주님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건축가라고 불렀던 것처럼, 나도 만인제사장에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건축가라는 것이고, 내가 건축가라는 것은 이제 내 삶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돌삼아 벽돌삼아 집을 지어 나간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머릿돌이 되신다는 얘기에요.

사람을 교인을 교회의 조직 안의 벽돌로 만들지 마요.
교회는 그거 하는 데가 아닙니다.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 내의 한 벽돌로 교인을 만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인이 어떤 건축을 하도록 돕습니까? 교인이 뭘 건축합니까?
우리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인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지역교회 안에서 무슨 뭐 아버지 학교다, 어머니 학교다 뭐 제자훈련이다 이게 아니고, 세상에서 엄마면 엄마 됨 자체가 프로그램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부부관계가 프로그램입니다, 직장이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건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머릿돌로 하는 건축.
이게 바로 창조 때 하는 건축과 똑같아요.

창조 때 어떤 건축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건축하시고 하늘을 건축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인테리어를 다 건축을 하십니다.
바다 밑에도 인테리어, 바다의 인테리어를 다 건축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제로가 있어요, Nothing! Nothing! Zero!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제로 상태에 창조를 해 가시고 건축을 하셨습니다.
천지를 건축하신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이제 내 인생을 건축합니다. 어떻게 건축합니까?
인격자인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의 내 인생에 대한 생각을 제로로 만들어버립니다.
소원을 제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제로가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곳에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건축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을 지어가는 가는 방식은, 태초에 제로상태가 있었고 그 제로 위에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셨던 제로원(0,1), 이 구도 안에서 건축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머릿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과의 관계를 건축해 나갑니다.

이게 프로그램이고 내 건축의 과제에요.
이럴 때 어떻게 건축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로가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제로가 되고 죽을 때에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통해서 건축되어집니다.
돌 하나가 얹어지게 됩니다.
그 위에 돌 하나가 얹어지고 그 다음에 만나서 또 제로가 되면 또 돌 하나가 얹어지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죽을 때마다, 하나님의 개념 속에 있던 건축의 돌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져 가면서 건축되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역교회가 교인들에게 하는 일은 지역교회를 성읍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목적이 교회를 성읍으로 만들어서, 어찌하든 모든 교인을 가능한 한 많은 시간동안 그 지역교회 예배당 안에 머물게 하는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한 가지,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해야 될 이유를 날마다 반복해서 깨우쳐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연합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했을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고 나면, 그거 하면,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내 보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 독특한 그 사람만의 인생의 그 사람만의 건축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싸잡아서 '돈 잘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축할 때, 어떤 사람은 돈을 벌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돈을 안 벌게 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건축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싸잡아서 '돈 잘 벌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로 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가르쳐주면 그게 바로 모퉁잇돌이신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건축의 모퉁잇돌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조직을 만들어 놓고 교인을 그 조직에 알맞은 벽돌로 만들기 위하여 새신자 교육

이다 제자훈련이다 무슨 교육이다, 무슨 교육이다, 무슨 교육이다.
바벨성읍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걸 왜 우리가 잊고 사는지 몰라요.
초대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구제 문제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면서, complain 을 하게 되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런 구제문제, 봉사문제 전념하다 이거 자꾸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다가는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겠으니까 이 구제와 봉사를 위해서 전담할 집사들을 뽑자!' 해서 일곱 집사를 뽑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교회의 역사 속에서 첫 번째 조직의 탄생입니다, 교회내의 조직에.
그런데 그 집사 일곱 집사를 뽑자마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벽돌로 성읍을 짓고 탑을 짓고 흩어지지 말자고 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도시 쌓기를 중지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1절에 보면 여기도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셔 가지고 사도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변으로 흩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박해를 허락하셔서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봉사와 교회내의 구제를 담당하도록 하자고 결의했던 집사들이, 사도보다도 더 사도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최초에 사도보다 더 사도같이 살다가 순교한 자가 스데반집사님이요, 사도들도 엄두도 못 냈던 사마리아 지역, 이방지역의 전도를, 문을 연자가 빌립집사입니다.
이거 왜 이러세요? 이거.
집사가 누가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자라고 그래요?
누가 그런,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런 걸 만들자마자 하나님께서 깨버리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조직을 갖습니까?
왜 교회 안에 교인들을 머물게 만드십니까? 바벨성읍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을 모퉁잇돌로 하는 자기 인생의 건축,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건축을 도저히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힘이 다 빠져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조직원으로 세상의 벽돌이 되고, 교회에 오면 교회조직 내에 알 맞는 교회 벽돌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두 가지 벽돌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연결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돌이 아니라, 인간의 조직에 맞추어진 벽돌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조직을 강화하려 할 때 반드시 교인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교인들을 벽돌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인은 건축가에요.
목사님이 할 일은 교인들이 나가서 자기 인생을 건축해 나갈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모퉁잇돌로 삼는 건축을 해 나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면 됩니다.

언제 우리의 교회가 바벨성읍 쌓기를 포기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뿐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엑스레이를 찍듯이 영적현실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참담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참담한 교회 현실 앞에서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서, 교회내의 완전히 절대적으로 정착되어진 바벨성읍 쌓기를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